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시학(시작술)』연구>

제7강 플롯의 가능적인 필연성에 대하여

1교시

◆ 플롯의 정의와 질서

▲ 플롯의 정의 - 행위와 사건들의 긴밀성

오늘은 7장입니다. 6장까지 비극의 여러 구성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6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구성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영혼이 되는 것이 플롯이다. 미토스(Mythos)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와서 드디어 플롯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합니다. 드라마에서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일터인데 그래서 비극의 제 1 위적이고 그렇게 번역을 했군요. 첫 번째 간다. 그런 얘기네요. 그건 메기스톤 하다. 메기스톤 비극에서 첫 번째이고 가장 메기스톤 최상급을 썼네요. 번역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정의했던 **"비극이 완결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전체적인 행동의 모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되고 또 전체를 가져야 되고, 또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측면 행위에 대한 모방인데 그 행위에 대한 모방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의 결합, 사건들이 배열이니까 그 배열이라는 게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 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완결되어 있다. completeness, 희랍어로는 Teleia라고 부르는 데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플롯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완결되고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고 전체적인. 원래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비극을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군요. 완결되고 있고 전체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해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 속에는 어떤 행동의 일치라고 그럴까요. 플롯이라는 게 행위의 사건들의 결합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unity of action',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메쏜이 있고 알파가 있고 미들이 있고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된다. 이 자체로서 하나의 Teleia, 완결성을 가져 줘야 한다. 알파 메쏜 오메가가 하나의 사건들의 결합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통일성을 가져줘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결성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처음, 중간,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것도 없어야 되고 그 이후에만 있어야 되고 가령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냐?'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지요. 태초라는 것 자체가 이미 처음이란 것을 전제했는데 처음에 그럼 뭐가 있었어? 처음 이전에?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끝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도 뭐가 있었어? 이거 없는 거지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시간의 짧은 역사』 쓴 호킹 박사

www.artnstudy.com

의 그 책 어딘가의 대목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태초 이전에 하나님도 없었지 어떤 측면에서. 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태초라는 말의 규정 아르케라는 말의 규정이 이미 이 전에 뭐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거든요. 플롯이라는 말도 하나의 전체로써 어떤 완결성을 가져주려고 하면 그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플롯이 구성되는 처음 중간 나중 그 사건들 속에서의 완결이 되어야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지 시작 이전에 끝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통일성을 가져 줘야 된다. 어떤 **사건들이 긴밀성**을 가져 줘야 된다는 얘기 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시초란 그 자신 필연적으로 다른 것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음에 다른 것이 존재하거나 생성되는 성질일 것이다."** 이전에는 뭐가 없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또 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끝 이외에는 엔딩이 있으면, 피네가 있으면, 끝이 났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이러한 긴밀성을 가져줘야 된다. 플롯이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구도라면 자연적인 것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구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일생을 살다가 죽은 것, 이것도 하나의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삶으로 보면. 또 만약에 신의 입장 같은 천지창조라는 생각 보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마지막이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이것도 하나의 완결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것을 의미했겠느냐. 지금 이 말속에 플롯이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어야 된다. 중간이라는 게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출생과 혹은 세계의 창조와 같은 처음과 끝이 있는 이러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롯에서 의미하고 있겠느냐? 그렇게는 안보여지지요. 또 가령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중간 나중이라는 게. 내가 누구와 사회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때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완결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사회적 관계 속에 결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끝냈다. 이게 뭐 중간에 이혼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과의 결혼 관계라는 것은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 결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완결된 모습이라고 말해 질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대통령의 정치적 생애를 살았다 하면 대통령에 당선 됐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 이것도 하나의 행위의 완결성 일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 했겠냐? 아니다.

▲ 플롯의 완결성 - 일정한 크기 속에서 행위의 일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라마 속에서의 플롯. 미토스라고 하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완결성을 갖는다는, 의미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령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어떠한 평온한 상태였지요. 이제 고향을 찾아가면 되. 자기 부인이 평온한 상태. 어떤 안정된 상태이지요. 그런 안정된 상태 속에서 십여 년의 전쟁이 끝나고 고향을 찾아가. 이타카로. 오디세우스가 자기 마누라가 기다리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행위

www.artnstudy.com

는 자기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 행위는 평온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전쟁이 끝난 상태부터 그런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거치고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을 거쳐 가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결국 만나. 이타카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인 페넬로페를 괴롭히는 약혼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평온을 찾았어. 거기서 이 드라마 속에서 플롯이 의도하는 목적이 이 자체에서 완결되는 것이지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위의 일치, 플롯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디세우스와 같은 뭔가 인생에서 어떠한 행위가 처음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 출발이 뭐냐. 그 출발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뤘다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가령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이몽룡이가 언제 태어나고 이몽룡이가 누구누구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뭐뭐하고 어릴 때 무슨 소변도 보고 이부자리에 눠가지고 소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네 뛰는 춘향이의 모습을 본 순간으로부터 그 두 사람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나중에 나오지만 처음에는 춘향과 이몽룡이 행복한 상태에서 부모가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어떤 불행이 닥쳐오고 변사또의 고약한 행위가 일어나고 춘향은 감옥을 가고 그러다가 불행에 빠졌다가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행복한 상태로 불행에 갔다가 행복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한 사태가 완결되고 이 경우는 조금 복합 플롯의 구조인데 행복과 불행과 행복이 겹치는,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경우는 오디세우스도 복합적인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불행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행으로 끝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플롯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플롯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 행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바로 이런 의미의 플롯의 통일 또 행위의 일치 행위의 통일을 바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롯을 얘기하면서 염두 해두고 있는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인간이 태어나고 이 세계의 처음이 있고 종말이 있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인간이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한 서사적인 역사적인 히스토리 서사적인 미토스 서사적인 플롯이 아니라, 드라마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물론 전체일 수 있지만 서사시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극이라고 트레고디아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게 뭐냐. 이건 역사적인 전기일수도 있고 호메로스는 드라마의 비극의 기원이 될 수 있고 플롯을 거기서 끄집어 내 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역사 전기적인 한 생애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슨 일을 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몇 년도에는 대학 총장하고, 몇 년도에는 정치 참여하고, 몇 년도에는 대통령에 떨어지고 그러한 것 아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런 또 상당히 그럴 듯해. 자연적인 것은 아니야. 사회적인 관계라는 건 결혼을 하고 결혼이 끝나고. 이런 정도의 드라마가 비극이 갖는 그러한 플롯의 구조는 아니고, 좀 더 완결되어 있다. 완결성을 가져 줘야 된다.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 된다. 또 하나의 wholeness, 전체성을 유지해 준다는 것. 결국은 완결성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라는 말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경우와 같이. 오디세우스가 언제 태어나고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서 농사짓는 척하고 돼지치기 노릇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크기도 가져 주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측면 Teleia 라는 측면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여

www.artnstudy.com

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플롯을 훌륭하게 구성하려면 아무 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원칙이라는 게 뭐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은 자연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속에 처음과 끝과 같은 것이 아닌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고 그 시점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그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누구누구 자식이고 이타카의 왕이었고 이타카의 페넬로페와 행복하게 살았고…이런 다른 것 빼 놓고 하나의 극적인 구성을 가지려면 어떤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아르케, 그런 의미의 시작. 그러니까 드라마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서 시작할 때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가 시작되는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starting point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드라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정한 크기라고 하는 것,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전체성** 어떤 전체적인 구조의 **긴밀성**을 가져 줘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 세 번째 구조같이 오디세우스의 경우와 같이 춘향전의 구조와 같이 그런 다음에 춘향전의 구조도 그런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변사또를 징벌하고 춘향과 만난 그 시점에서 끝났어요. 그들의 삶 춘향과 이몽룡의 삶 속에서 보면 다음 것도 뭐가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연애 사건을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과 벼슬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 관계가….그러나 행위의 완결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 줘야지 춘향과 그 이후에 다른 둘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했다든가 이몽룡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돼. 여기서 끝나 줘야 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에 드라마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드라마가 잘 됐어요. 너무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그 이후도 보여 달라. 좀 더 연장해가지고 더 해라. 드라마를 질질 끈다는 말이지요, 플롯을. 그런 다음에 춘향과 이몽룡의 삶이 어땠을까? 그래서 뭘 보여주면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 속에서 행위의 일치**를 가지고 처음과 끝이 완결을 보여 주는 그래야 여기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사건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 비극의 아름다움 _ 일정한 질서와 크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왜 비극이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아름다움의 예를 바로 들고 있어요. 일정한 크기와 질서 여러 부분의 배열에 있어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크기와 질서에 있기 때문이다. 메게토스(megethos), Taxis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Kalon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끝나 줘야지 그래서 일정한 메게토스를 가져 줘야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질서가 있어 줘야지. 그래야 이 드라마가 완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드라마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의 비극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슬픈 비극 주인공이 해피한 상태에서 불행으로 빠졌다고 치면…. 도대체 행복하게 살다가 불행해졌어. 가령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둘이 아주 사랑하다가 아주 행복한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비극적인 모습으로 죽었어. 거기서 완결이 되어야지. '왜 그들이 행복했던 상태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행한 상태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는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사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www.artnstudy.com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불행한 사태로 가긴 가야 되지요. 바로 이 플롯이 이러한 Teleia를 가져줬을 때 사건들의 결합 속에서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행위가 통일성을 가지고 완결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비극 자체는 비극을 보면서 아름답다 라고 느끼고 남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비극적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 즐거워, 아 유쾌해, 참 아름다운 일이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이 플롯 구조 자체 내에서 행위들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사건들과 결합 속에서 미토스의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은 크기와 질서 속에 있다. 플롯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태를 보고 우리가 남의 불행한 사태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이지요. 이것이 갖는 것은 비극적인 효과이지. 이 플롯의 구조가 아름다우려면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 되고, **완결**되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로미오가 언제 태어나고 그 집 내력 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할아버지부터 조상 때부터 싸우고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알파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 안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름다움 이라는 것은 드라마가 뒤에 가면 드라마의 시간 길이도 나와요. 가령 영화가 극장에 들어갔는데 5분 만에 끝나봐. 또 그런 생각해서 드라마가 한 열 시간씩 해봐. 중간에 밥 먹어가면서 그런 영화도 있긴 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한 20분씩 쉬고 또 한 두 시간 보다가 한 시간 쉬고 또 하고 이틀사흘씩 질질 늘려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그런 극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움 보다는 지루함, 추함 이런 것을 볼지 모르지요. 마치 그 예를 무엇으로 드느냐 하면, 생물 같은 것을 봐라. 너무 작은 것 아름답지 않다. 너무 큰 것 너무 긴 것 이것 아름답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건 비유적으로 플롯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는 어떤 적절한, 희랍어로는 Ti megethos 얼마만큼의 일정한 길이를 가져 줘야 돼. 일정한 길이만 가져줘야 되지. 왜 그러냐? 왜 일정한 길이를 넘어서는 것은 아름답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지나치게 플롯의 길이가 길면 왜 아름답지 않느냐. 마치 그것은 우리가 생물체를 볼 때 너무 큰 조각을 보세요. 그것을 보려면 아래로부터 끝까지 보려면 단번에 관찰 불가능하다. 너무 작으면 보이지 않고 너무 크면 보기가 단번에 관찰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번에 볼 수 있는 것. 희랍어로는 eusunopion 한 눈에 함께 이 전체적인 구조, 사건들의 결합들이 단번에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 됐다는 거지요. 그 플롯의 구조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ti megethos 해야 돼. 일정한 길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의미, 내용, 사건의 배열, 그 사건과 사건의 결합된 관계가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지를 단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플롯의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www.artnstudy.com